

인물을 다루고 있는 전기나 평전은 그 종류와 형식을 분류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며, 끊임없이 출판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얼굴'이 있으므로 전기나 평전이 꾸준히 책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인물·평전 분야만큼 시대의 흐름과 긴밀하게 조응하는 출판물도 드물다.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천 개의 고원》(새물결)을 보면 시대의 카오스적 흐름은 '얼굴'과 '풍경'을 만든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 당시의 아우라와 함께 반드시 어떤 인물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것에도 연관이 있다. 개인적으로 떠올리는 얼굴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유명하거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인물이거나, 어쨌거나 우리는 얼굴을 떠올리며 시간을 반추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타의 출판물이 시대의 '풍경'이라면, 인물·평전 분야의 출판은 시대를 표상하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 보자면 1980년대의 풍경 속에서 떠오르는 얼굴은 박노해다. 지금은 얼굴을 찾았지만 당시에는 '얼굴 없는' 시인이자 혁명가였다. 아이러니하게도 1980년대의 얼굴은 얼굴이 없었다. 그것은 당시 무명으로 존재했던, 보잘것없이 존재했던 민중과 노동자들의 힘이 폭발적으로 등장했던 풍경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던 셈이다. 1990년대는 대중문화 혹은 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서태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박노해와 서태지를 예로 든 것은 하나의 전형적인 얼굴에 불과하다. 단지 우리의 인물·평전 분야의 출판이 어떤 얼굴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단적인 사례인 것이다. 물론 혁명가의 전기나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평전은 지금도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1990년대를 지나오면서 2003년 오늘날 우리의 출판이 찾고 있는 얼굴은 좀더 미시적인 얼굴인 듯하다.

2002년 월드컵 이후 히딩크와 태극전사들에 대한 즉흥적인 기획 평전들을 제외한다면, 그리고 시리즈로 기획된 역사인

물 총서류의 출판물을 제외한다면 현재의 평전들은 몇 가지 테마로 압축되고 있다. 먼저 자본의 전지구화에 맞서는 전 세계민중들의 저항과 변혁의 흐름 속에서 조명되는 얼굴들이 있다. 《피델 카스트로의 CHE》(녹두), 《체 게바라 평전》(실천문학사), 《체 게바라의 라틴 여행일기》(이후), 《체의 일기》(거리문학제) 등 다양한 체 게바라 평전들이 대표적이다.

더구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3세계 혁명가들이나 반제국주의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평전이 주목받으면서 인물·평전 출판물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피델 카스트로》(홍익출판사), 《나의 아버지 모택동》(범우사), 《모택동 자전》(평민사)을 위시하여 《호치민 평전》(자인), 《프란츠 파농》(실천문학사), 《나는 내가 아니다-프란츠 파농 평전》(우물이있는집) 등이 그렇다. 이 밖에 레닌을 재조명한 책들이 번역되고 트로츠키와 로자 룩셈부르크의 평전도 상당수 새롭게 출간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적색과 좌파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다시 움트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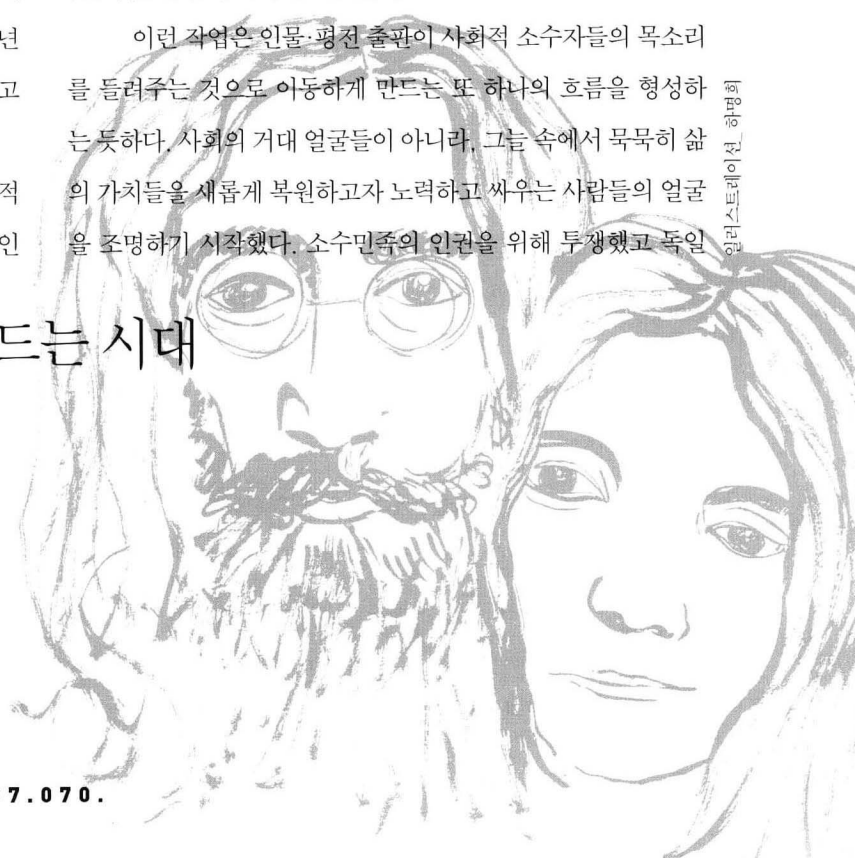
혁명적이고 저항 정치적인 인물들의 평전이 다시 조명받는 것은 분명 세계정세와 관련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인문과학계의 근대성의 역사와 근대 식민지에 대한 재평가 작업과의 관련 속에서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근대적 담론이 만들어놓은 인종주의, 식민주의 등 온갖 차별주의의 폭력적 기원을 파헤치려는 뜻있는 작업은 《인디언의 전설, 크레이지 호스》(휴머니스트), 천황제에 저항하며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여성 아나키스트인 《가네코 후미코》(산처럼) 등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이런 작업은 인물·평전 출판이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듯하다. 사회의 거대 얼굴들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묵묵히 삶의 가치들을 새롭게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싸우는 사람들의 얼굴을 조명하기 시작했다. 소수민족의 인권을 위해 투쟁했고 독일

인리스트레이인\_하명희

## 시대가 만든 인물, 인물이 만드는 시대

이성문\_웹진 <부커스> 객원기자



녹색당을 창당하기도 했던 페트라 켈리의 평전 《나는 평화를 원한다》(양문), 20세기 초 미국에서 '노동자들의 잔다르크'라 불리었던 마더 존스의 일대기를 그린 《Mother Jones -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녹두), 장애인권운동가 최옥란의 평전인 《시대를 울린 여자》(서울포스트), 그래민 은행 설립자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의 자서전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세상사람들의책) 등은 소수민족, 장애인, 여성, 생태주의자 등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알다시피 이 평전들의 주인공은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사실 오늘날 인물·평전 출판에 있어 페미니즘 마인드가 없는 출판물은 외면받는다고 말해도 좋다. 이는 상당수 주목을 받고 있는 평전들이 여성의 삶과 목소리를 다루고 있음을 봐도 알 수 있다. 《마릴린 먼로, my story》(해냄), 《세상을 유혹하는 여자 마릴린 먼로》(예담) 등 섹스 심벌로만 인식되어오던 마릴린 먼로를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다룬 평전들, 최근의 《마녀에서 예술가로 오노 요코》(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였던 나혜석의 삶을 다룬 《인간으로 살고 싶다》(한길사) 등 서점가의 풍경은 여성들의 얼굴에 의해 장악되었다. 특히 오노 요코의 평전은 존 레논의 얼굴에 가려져 비틀즈 해산의 진원지, 존 레논의 명성을 이용한 교활한 그루피라는 비난을 받았던 오노 요코를 독창적인 아티스트이자 반전운동을 전개한 고유한 저항 정치가로 재조명함으로써 주목을 끌었다. 이것은 오늘날과 같은 복합적 흐름의 풍경 속에서 어떤 얼굴이 독자들에게 의해 선택되는지 잘 보여준다.

크게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의한 반전운동의 흐름에 어필하는 기획인 《마녀에서 예술가로 오노 요코》는 페미니즘의 흐름에도 어필하며,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삶의 다른 가치를 열어가려는 소수자적 문화 흐름에도 적절하게 어필하는 복합적 얼굴인 셈이다. 당대의 풍경을 장악하고 있는 압도적인 얼굴, 육중한 카리스마의 얼굴이 아니라 현실의 카오스적 풍경에 조응하는 복합적이고 섬세한 얼굴이 주목받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얼굴

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노 요코는 한편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삶의 다양성이 움트고 있는, 또 한쪽에서는 주변으로 내몰려 소수자로 고통받는 삶이 동시에 공존하는 다층적인 시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독자들은 이렇듯 거대 서사의 얼굴과 미세한 다양성의 얼굴이 공존하는 복합적 얼굴을 향하고 있다.

페미니즘이 인물·평전 출판에서 여성의 얼굴을 전면에서 내세우게 만들었다면, 생태주의적 흐름은 새로운 미적 가치관, 윤리관을 가진 얼굴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했던 《나는 평화를 원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등의 평전이 이에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가난한 마음 마더 테레사》(생각의나무), 많은 간디의 평전 등도 자연과의 공존, 인간 사이의 나눔이라는 생태주의와 연관된 얼굴들이다. 나는 앞으로 인물·평전의 출판은 그것이 어떤 쟁점의 인물을 다루든지 간에 여성성과 생태주의적 마인드를 경유하지 않는 인물 조명은 독자들의 호응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물·평전 출판의 트렌드를 읽는다는 명목 아래 주관적으로 시대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자본의 전지구화에 저항하는 얼굴, 근대성의 형성과정에서 주변으로 내몰린 얼굴, 다양한 삶의 가치를 열어가려는 소수자의 얼굴, 여성성과 생태적인 윤리의 얼굴 등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울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얼굴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것은 표면의 맥락을 터듬스케치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심에 가려졌던 주변과 그들의 얼굴에 주목하는 경향성은 뚜렷하다. 우리 사회의 얼굴이 보다 복합적으로 되어가는 만큼 인물·평전 출판은 다양한 기획이 가능한 무한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거대 서사의 얼굴이 외면 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얼마나 복합적인 프리즘을 관통하느냐가 중요하다. 그와 함께 아직 발굴되지 못한 얼굴에 조명을 더 비추는 신선한 작업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

